

1999

관양동

내손동 지역의 재개발로
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새로운 성당을
건축하여 관양동 시대를 열었다.

함만수(실라) 교우는 설계, 시공, 감독 등 건축 전과정에서 열정을 다 바쳤다.



▲ 관양동 성당



▲ 함만수(실라) 교우



▲ 한 니콜라, 목
클라라 교우의 봉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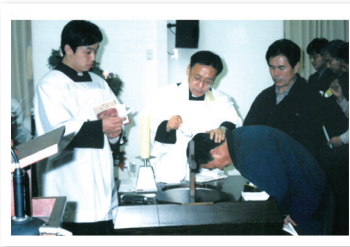


▲ 관양동 성당

2001 4대 관할사제로 최성석(아타나시오)신부가 부임하였으며, 중국, 호주, 필리핀 선교 여행과 112 복음화 운동, 아버지 학교, 꽃노을 복지센터 개설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쳐 교회성장을 이루었다.



▲ 안양교회 아버지학교



▲ 성사를 베풀고 있는 최성석(아타나시오)
신부와 조력중인 최용준(바우로) 전도사



▲ 백두산천지 순례

2006 5대 관할사제 천용욱(파비안)신부는 박달동 지하성당으로 이전하고 동편마을 새로운 건축을 위한 새벽기도와 수요기도 모임 등으로 교우들의 열정을 모았다.



▲ 천용욱(파비안) 신부



▲ 천용욱(파비안) 신부



▲ 천용욱(파비안) 신부



▲ 함혁(로렌스) 수사(성 프란시스 수도회)



▲ 함혁(로렌스)수사 안양교회 출신2호 사제



▲ 한덕훈(바우로) 안양교회 출신 3호 사제